오늘 '정운찬 인준안'… 정치권 일촉즉발

한나라, 표결 강행 정면 돌파키로

丁·昌공조 처리반대… 충돌 불가피

한나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나 야권이 공조, 이에 대응키로 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이어 국정감사, 10월 재보선 등 초대형 이슈가 잇따를 것이어서 정국은 한치 앞을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자유선진당 등 야권공조를 통해 여론전을 시도하는 한편 정 후보자의 실정법 의혹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섰다.

정세균 대표는 27일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다른 야당 대표와도 조만간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도 "정 후보자는 이번에 만신창이가 된 것"이라며 "여권이 이런 상황에서 수로 밀어붙인다면 그야말로 강심장으로, 설령 밀어붙이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노영민 대변인도 논평에서 "한나라당은 의석수를 앞세운 인준 강행을 중단하라"며 "정 후보자도 버티기를 그만두고 자진사퇴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과 선진당은 정 후보자 인준 반대와 세종시 문제에 대해 공조키로 하고 조만간 원내대표단간 협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구체적 행동방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대여론을 확산시킨다는 취지에서 인준절차를 29일 본회의로 연기할 것을 주장하며 지연전술에도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수입·지출액을 고의로 축소 보고했다며 위증죄로 28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당 회동을 갖고 있다. 양당은 세종시 원안 추진,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반대 등 공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은 정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야권의 태도에 관계없이 예정대로 28일 본회의에서 당력을 총집결해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는 것.

안상수 원내대표는 27일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10월 재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 후보자를 난타하고 있다"며 "집권 2기를 맞아 제대로 일하기 위해선 야당의 발목잡기 정치공세를 정면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인준안 표결을 29일로 늦추자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해외 출장 중인 의원을 27일까지 귀국하도록 조치했으며, 28일 상임위별로 소속 의원들의 참석을 독려하고, 의원총회를 열어 인준안 처리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내부 표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도개혁 그룹 내에선 정 후보자에 대해 세종시 논란에 이어 소득 누락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실망스럽다는 정서가 있지만, 안정적 국정운영, 중도실용 및 국민통합 국정기조 유지를 위해선 인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내달 13일 전남도·전남경찰청 국감

광주·전남 국감 일정

올 광주전남지역 기관들 중 국회 국정감사 대상에는 전남도와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전남대, 광주지방국세청 등이 포함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13일 전남도와 전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의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6일에는 농식품위의 전남도에 대한 감사가 이어진다.

또 16일엔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전남대의 국회 교육과학위의 국정감사가 실시될 예정이지만 아직 상임위의 최종 의결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가 19일 광주세관과 광주지방국세청, 20일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20일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광주 현장 국감에 나서 광주시 문화관광시책을 점검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 현장과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을 시찰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국정감사 일정

일 시		대상기관	장소	상임위
13일	오전 10시	전남도	전남도청	행안위
	오후 3시	전남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행안위
15일	오전 10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광양)	부산항만공사	국토위
16일	오전 10시	전남도	전남도청	농식품위
	오전 10시	광주시·전남도교육청(미정)	전남교육청	교과위
	오후 3시	전남대(미정)	전남대	교과위
19일	오전 10시	광주세관	광주합동청사	기재위
	오후 3시	광주지방국세청	〃	기재위
20일	오전 11시	한은광주전남본부	한은 전북본부	기재위
	종일	광주 현장 국감	광주 일원	문방위

재보선, 경제살리기냐 정권심판론이냐

여야 공천 윤곽 … 총력전

10·28 재보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사실상 미니 총선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해 여야는 총력을 기울인다는 태세다.

우선 민주당은 추석 전에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선거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며 수도권 등 최소한 3곳 이상의 승리를 내부 목표로 세웠다.

안산 상록을은 고정 지지층을 갖고 있는 진보진영의 임종인 전 의원이 출마해 야권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크고, 수원 장안은 이찬열 지역위원장과 장 상 최고위원을 놓고 내부 교통정리부터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과 정범구 전 의원처럼 전국적 인지도를 지닌 지역 출신 인사가 포진해 해볼 만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일단 '인물론' 대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론'으로 선거 구도를 끌고간다는 복안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경제살리기를 강조하며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에 맞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상승세이고 경제위기가 극복돼 가는 청신호가 켜지는 등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수원 장안에는 지명도가 높은 박찬숙 전 의원을 공천키로 했으며 안산 상록을에는 송진섭 전 안산시장을 후보로 확정했다.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의 후보자는 내달초 추석 연휴 이후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세종시 문제에 진력하고 있는 선진당은 충북권의 교두보 확보를 지상 과제로 삼고 경쟁력 있는 인물 물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靑 "G20 유치, 한일합방 100년만에 세계 외교 중심"

청와대는 27일 내년 11월 G20(주요 20국)정상회의 유치에 대해 "한일강제합방 100년이 되는 해에 세계 외교무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동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이 한일 강제합방 100년 되는 해인 만큼 (G20정상회의 유치 의미를) 거기에 붙이는 게 더 맞겠다"면서 "한일 강제합방 100년 만에 우리가 세계 외교무대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100여년 전인 1907년 고종이 헤이그 밀사를 파견했는데 회의장에도 못 들어가고 분사했다. 나라의 운명도 열강에 맡겨야 했던 변방이었다"면서 "우리도 100여년 만에 헤이그 밀사의 치욕을 국제 외교무대에서 보상받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G20 유치로 신흥 중진국 리더가 처음으로 세계 중심축에 위치하게 됐다는 의미에서 이번 G20 유치를 계기로 정치, 사회, 문화 법질서, 도덕적 수준까지 선진국 수준, 글로벌 스탠더드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